

六味地黃湯證의 病因論적 분석을 위한 說問問項 開發

조상원, 박영재, 김민용, 오환섭, 박영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인체정보의학과학교실

Abstract

Development of Questionnaires for Pathogenesis Analysis of Yukmijiwhang-tang Symptom

Sang-won Cho, Young-Jae Park, Min-yong Kim, Hwan-Sup Oh, Young-bae Park,

Dept. of Human Informatics of Oriental Medicine, Interdisciplinary Programs, Kyung-Hee University

Background:

Yukmijiwhang-tang is one of the most common herbal formulas in Oriental Medicine. Yukmijiwhang-tang has been widely used as a herbal medicine to replenish Yin and tonify the kidneys for hundred years in Asian countries. Because of insufficiency in data, objective judgements about remedial effects have been difficult. In order to make objectivity diagnostic data, this research is developed.

Purpose: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make a pilot questionnaire for clinical use of Yukmijiwhang-tang.

Methods: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symptoms and signs for Yukmijiwhang-tang is studied by the Delphi method.

Results:

By the Delphi method and score evaluation, 30 items of the initial copy of questionnaire are chosen for the research.

Conclusions:

By the Delphic survey among clinicians, a reference questionnaire for Yukmijiwhang-tang applications was suggested.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for modification of questionnaire by statistics and certification by clinical trial. research.

Key Words :

Delphi method, questionnaire, Yukmijiwhang-tang.

I. 서론

病因論이란 人體의 疾病을 治療함에 있어서 症狀에 집착하지 않고 病의 原因을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규정하고, 疾病의 原因을 診斷함과 동시에 原因治療를 함으로써 治療 效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理論과 臨床體系를 말한다. 疾病과 症狀이 수없이 많다고 하나 그 原因은 세가지에 불과하며 그 原因에 따른 治療를 하면 그로 인한 症狀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2,3)}

外因에는 六氣와 食滯가 있고, 內因에는 勞倦傷, 七情傷, 房勞傷, 飲食傷이 있으며, 不內外因에는 불의의 사고, 타박 등을 말한다.

六味地黃湯은 宋代 醫家인 錢乙이 古方을 化裁하여 創製한 것으로 후세의가들에게 널리 사용된 처방이다. 朱丹溪의 滋陰大補丸은 錢乙의 六味丸과 還少丹을 가감하여 만든 것이고, 李東垣의 益陰腎氣丸, 王海藏의 都氣丸, 瀉腎丸도 六味地黃丸의 類方이며, 뒤를 이어 明代 薛己가 이 처방을 이어 사용하면서 眞陰을 補하는 성약이 되었고 趙養葵는 본방을 매우 추앙하여 命門眞水를 補養하는 專劑로 삼았다.¹⁾ 病因論에서는 內因중에 房勞傷을 치료하는 대표처방이라 할 수 있다. 房勞傷이란 嗜慾을 절제하지 못하고 性生活을 과도하게 하여 眞精을 損耗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증상을 의미한다.

실제 診療할 때 공통적인 진료 매뉴얼이 부재하여 각 한의사간 標準된 진단 방법이 없고 각자의 經驗과 지식에 의거하여 처방해 온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最近에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보다 客觀的인 진단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설문지 개발에 관한 논문으로는 윤²⁾의 補中益氣湯證의 病因論적 분석을 위한 說問問項 開發, 임³⁾의 平胃散證의 病

因論的 分析을 위한 說問問項 開發, 고⁴⁾의 사상변 증내용 설문조사지(1), 김⁵⁾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김^{6,7)}의 寒熱辨證說問紙, 양⁸⁾의 瘀血辨證說問紙, 박⁹⁾의 痰飲辨證說問紙, 배¹⁰⁾의 熱辨證說問紙 등이 있다.

六味地黃湯에 대해서 최¹¹⁾는 「六味地黃湯加味方이 흰쥐의 기억능력과 중추신경계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六味地黃湯加味方 投與을 통한 腎機能의 強化는 hippocampus 神經細胞 成長에 間接的 影響을 미치는 한편 神經退化를 막고 神經細胞의 老化를 抑制함으로써 記憶能力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조¹²⁾는 「六味地黃湯 藥針이 생쥐의 난소 기능 및 임신과 분만에 미치는 영향」에서 六味地黃湯 藥針은 생쥐의 배란율, 배발생, 수태율 및 분만율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특히 임신 시기별로는 임신 초기에 보다 효과적이었으므로 六味地黃湯 藥針이 여성불임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薛¹³⁾은 「六味地黃湯對OLEFT鼠糖尿 尿病發病的豫防作用及其機制的研究」에서 六味地黃湯이 당뇨병에 유의하게 당뇨를 조절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莊¹⁴⁾은 「中西醫結合 治療支氣管哮喘的理論和臨床研究及六味地黃丸對 Th1/Th2免疫調節機制的探討」에서 六味地黃湯이 기관지천식과 면역작용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고, 張¹⁵⁾은 「六味地黃湯加減治療萎縮性胃炎50例」에서 六味地黃湯加味方으로 萎縮性胃炎을 치료한 예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각 논문의 내용을 임상에서 환자에게 六味地黃湯을 처방하는 데 실제로 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六味地黃湯을 중심으로 설문을 개발하는 것이 六味地黃湯의 임상적 활용도를 提高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표준병인 六味地黃湯

의 설문지개발의 전단계로서 病因論을 근거로 설문문항을 개발, 이를 Delphi기법을 통해 정리, 보완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및 결과

(1) 개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5種의 醫書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그 설문문항으로 1차, 2차 설문조사를 7점 척도에 의거하여 50인 이상의 專門家 집단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유의성이 있는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2) 설문문항 개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하여 李15)의 『醫學入門』, 許16)의 『東醫寶鑑』, 張17)의 『景岳全書』, 朴18)의 『病因病機學』, 金19)의 『病因論』 등 5종을 참고서적으로 선택하였다. 각각의 문헌들에서 六味地黃湯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을 검색한 뒤 각각의 조문들을 현재 일상에서 사용하는 질문형식으로 전환하여 우선 7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별표) 이것을 임상한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쉬운 용어로 변환하여 43개의 1차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순서는 무작위로 배치하였다.(Table. 1)

(별표)

1. 목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가?
2. 노인) 소변이 쉽게 나가는가?
3. 소변을 너무 자주 보지는 않는가?
4.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가?

5.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은가?
6. 귀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가?
7. 귀가 잘 안 들리는가? (특히 우측)
8. 허리가 늘 은은히 아프지는 않는가?
9. 허리가 아파 일어서는 것이 힘든가?
10. 머리가 빠지지는 않는가?
11. 오후에 열이 나는가?
12. 오후에 기침을 하지는 않는가?
13.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오는가?
14. 가래가 많이 나오는가?
15. 얼굴이 오후에 붉어지나?
16. 소변이 붉은편인가?
17. 소변이 다소 뽀뽀하게 나가는가?
18. 밤에 잠을 잘 때 땀을 흘리는가?
19. 몸이 수척하여 말랐는가?
20. 오후에 가슴이 많이 답답한가?
21. 뺨에서 열이 나는 느낌이 있는가?
22. 피로를 많이 느끼는가?
23. 음주를 자주하는가?
24. 부부관계가 지나치지는 않는가?
25. 과로하면 기침이 발생하는가?
26. 유독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가?
27. 갈증을 느끼는가?
28.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가?
29. 소변이 기름 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30. 콧바퀴가 마르고 검어지는가?
31. 다리와 무릎이 가늘어지는가?
32.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가?
33. 아이의 머리가 유난히 큰 편인가?
34. 아이의 숫구멍이 잘 닫히지 않는가?
35. 아이가 말이 느리게 터지는가?
36. 아이가 이빨이 느리게 나오는가?
37. 아이가 자꾸 앓아 있으려 하는가?

38. 아이가 걷는 것이 또래에 비하여 느린 편인가?
39. 아이가 다리가 마르고 무릎만 도드라지지 않는가?
40. 밤에 열이 나고 땀을 흘리는가?
41. 몸이 수척하고 힘이 없는가?
42. 가만히 있어도 정액이 나오는가?
43. 소변이 붉거나 피가 섞이지는 않는가?
44. 소변이 뿌옇고 잘 안 나가는가?
45.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며 기침이 나지는 않는가?
46. 상한에 있어 음허발열하고 얼굴이 붉고 갈증을 느끼며 답답하고, 맥이 부흥하며 무력한 경우
47. 얼굴이 붉고 갈증을 느끼지는 않는가?
48. 피부가 거칠고 정혈이 부족하며(기운이 없거나 성욕이 적거나) 가슴이 답답한가?
49. 허열이 뜨지는 않는가?
50. 과도한 이후로 밤에 열이 나지는 않는가?
51. 오후에 열이 뜨는가?
52. 찬 것을 좋아하는가?
53. 대변이 굳은편인가?
54. 기침이 잦고, 목구멍이 아프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가?
55. 피를 토하거나 코피를 자주 흘리지는 않는가?
56. 기침하는 것이 오래되었는가?
57. 아랫배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는가? 그로 인하여 기침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58. 얼굴과 눈이 자주 붓는가?
59. 설사를 하는데 약간 미열이 있는가?
60. 머리가 아픈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지는 않는가?
61. 부부관계가 너무 잦거나 혹은 수음을 과도히 하지는 않았는가?
62. 이빨이 흔들리는가?
63. 잇몸에서 붓고 출혈이 발생하는가?
64. 아랫배가 당기고 아픈가?
65. 생리가 늦어지는가?
66. 생리가 불순한 것이 육정과 연관되었는가?
67. 대취한 후 부부관계를 하였는가?
68.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가?
69. 냉이 있는가?
70. 두드러기 혹은 부스럼이 성관계 후에 더 발생하지는 않는가?
71. 부스럼에서 피가 나오는가?
72. 수염이 난 부위에 용저가 발생하였는가?
73.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많이 뭉쳐 나오는가?
74. 다리가 마르는가?
75. 발 뒷꿈치가 아픈가?

설문 문항의 대부분은 원문의 내용에 충실히 하여 실으려고 노력했으며 41, 42, 43번의 문항은 원문에서는 그 증상을 찾기는 어려우나 房勞傷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로서 임상한의사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Table. 1) 1차 설문문항

문 항			
1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는다.	23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
2	소변을 자주 본다.	24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
3	소변이 진하게 나온다.	25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

4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다.	26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멎쳐 나온다.
5	소변이 뿌옇고 잘 안 나온다.	27	기침하는 것이 오래 되었다.
6	대변이 딱딱한 편이다.	28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7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29	뺨에서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
8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30	피로를 많이 느낀다.
9	허리가 늘 은은히 아프다.	31	몸이 수척하고 힘이 없다.
10	허리가 아파 일어서는 것이 힘들다.	32	귓바퀴가 마르고 검어진다.
11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	33	다리와 무릎이 가늘어진다.
12	피부가 거친 편이다.	34	다리에 힘이 없다.
13	오후에 열이 난다.	35	성인) 성행위 후 피로감이 심해진다.
14	오후에 기침을 한다.	36	자위행위를 자주하는 편이다.
15	오후에 얼굴이 붉어진다.	37	가만히 있어도 정액이 스스로 나온다.
16	오후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38	아랫배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
17	입이 자주 마른다.	39	아랫배가 당기고 아프다.
18	과로하면 밤에 열이 난다.	40	발 뒷꿈치가 아프다.
19	밤에 잠을 잘 때 땀을 흘린다.	41	입술주위에 하얀 거품이 생긴다.
20	코피를 자주 흘린다.	42	추위와 더위 둘 다 많이 탄다.
21	찬 것을 좋아한다.	43	양치 시 혀를 닦아도 금방 때가 낀다.
22	이빨이 자주 흔들린다.		

이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임상한의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문항의 중요도를 리커드 7점 척도를 이용한 2회에 걸친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3) 1차 설문조사

작성된 43개의 설문문항으로 臨床韓醫師들에 의해 六味地黃湯을 辨證하는 설문문항의 중요도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답하게 하였다.(Table. 2)

설문에 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1점으로 답변하게 하였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항은 7점으로 답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구성문항들이 실제 六味地黃湯을 처방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됨을 확인시켰다.

(Table. 2) Likert Scale for Delphi Method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A. 대상

대한병인학회 소속 52인의 임상한의사로 임상경력은 2~20년으로 평균 9.67년이었으며, 남녀는 구분하지 않았다.

B. 방법

설문작성은 직접대면작성, 이메일(E-mail),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작성을 하면서 설문문항에 없는 기타의견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다.

C. 결과

이중 4점 미만인 문항은 12문항(27.9%), 4점 이상 5점 미만은 16문항(37.2%), 5점 이상 6점 미만은 14문항(32.5%), 6점 이상은 1문항이었다.(2.3%) (Table.3)

1차 설문조사 결과 4점 미만인 문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1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차 조사결과 중 임상에서 사용하는 질문이 추가되었기에 6개의 문항을 첨가하였으며, 기존의 31, 32번 문항은 의사의 望診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새로이 35문항을 만들었다.(Table. 4) 추가된 문항은 5번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 12번 “밤에 피부가 가렵다.”, 18번 “잠을 자려고 할 때 발바닥에 열이 난다.”, 25번 “기상 시 피로하다.”, 29번 “잘 넘어지거나 혹은 발을 잘 뺏다.”, 34번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의 6개 문항이다.

(4) 2차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균값 4.00 미만의 문항은 삭제하고 새로이 35문항을 만들어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Table. 4) 1차 설문조사 중

(Table.3) 1차 설문문항 결과

문 항					
1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는다.	3.20	23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	3.53
2	소변을 자주 본다.	4.64	24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	3.64
3	소변이 진하게 나온다.	4.50	25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	6.06
4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다.	4.38	26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뭉쳐 나온다.	3.68
5	소변이 잘 안 나온다.	4.28	27	기침하는 것이 오래 되었다.	5.36
6	대변이 딱딱한 편이다.	4.20	28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4.96
7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5.10	29	뼈에서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	5.04
8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3.80	30	피로를 많이 느낀다.	5.00
9	허리가 늘 은은히 아프다.	5.68	31	몸이 수척하고 힘이 없다.	4.68
10	허리가 아파 일어서는 것이 힘들다.	4.58	32	귓바퀴가 마르고 검어진다.	4.62
11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	4.10	33	다리와 무릎이 가늘어진다.	4.54
12	피부가 거친 편이다.	4.71	34	다리에 힘이 없다.	4.96
13	오후에 열이 난다.	5.32	35	성인) 성행위 후 피로감이 심해진다.	5.62
14	오후에 기침을 한다.	4.62	36	자위행위를 자주하는 편이다.	5.00

15	오후에 얼굴이 붉어진다.	5.04	37	가만히 있어도 정액이 스스로 나온다.	4.74
16	오후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3.67	38	아랫배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	3.10
17	입이 자주 마른다.	5.18	39	아랫배가 당기고 아픈다.	3.26
18	과로하면 밤에 열이 난다.	5.16	40	발 뒷꿈치가 아프다.	5.06
19	밤에 잠을 잘 때 땀을 흘린다.	5.71	41	입술주위에 하얀 거품이 생긴다.	3.04
20	코피를 자주 흘린다.	3.90	42	추위와 더위 둘 다 많이 탄다.	5.50
21	찬 것을 좋아한다.	4.36	43	양치 시 혀를 닦아도 금방 때가 낀다.	3.09
22	이빨이 자주 흔들린다.	3.74			

작성토록 한 기타의견 중에서 ‘臍下無力’, ‘黑色皮膚’, ‘腎俞穴 壓痛’등의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설문문의 내용이 아니라 의사의 切診, 望診의 내용이므로 2차 설문문항에 추가하지 않았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지하고, 델파이조사의 반복, 연구의 목적과 방법, 향후 연구 성과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이번 연구의 목적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형식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됨을 재차 확인시켰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深思熟考해서 실제 임상에서 辨證하는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A. 대상

50명의 대한병인학회 소속 임상한의사로 임상경

(Table. 4) 2차 설문문항

문 항			
1	소변을 자주 본다.	19	찬 것을 좋아한다.
2	소변이 진하게 나온다.	20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다.	21	기침하는 것이 오래 되었다.
4	소변이 잘 안 나온다.	22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5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	23	뺨에서 열이 난다.
6	대변이 딱딱한 편이다.	24	피로를 많이 느낀다.
7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25	기상 시 피로하다.

력은 2~20년으로 평균 8.71년 이었다.

B. 방법

설문작성은 직접대면작성, 이메일(E-mail),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C. 결과

1차 설문조사와는 달리 29번 문항인 ‘잘 넘어지거나 혹은 발을 잘 뺨다.’를 제외한 34문항 모두 평균 4점을 넘었으며, 4점 이상 5점미만은 14문항(40%), 5점 이상 6점미만은 18문항(51.4%), 6점 이상은 2문항(5.7%)이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이 六味地黃湯의 辨證 판단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29번 문항을 제외한 34항목을 설문문항으로 채택하였다. (Table. 5)

8	허리가 늘 은은히 아프다.	26	잠잘 때 땀을 흘린다.
9	허리가 아파 일어서는 것이 힘들다.	27	다리와 무릎이 가늘어진다.
10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	28	다리에 힘이 없다.
11	피부가 거친 편이다.	29	잘 넘어지거나 혹은 발을 잘 뺀다.
12	밤에 피부가 가렵다.	30	성인) 성행위 후 피로가 심하다.
13	오후에 열이 난다.	31	자위행위를 자주 하는 편이다.
14	오후에 기침을 한다.	32	가만히 있어도 정액이 스스로 나온다.
15	오후에 얼굴이 붉어진다.	33	발 뒷꿈치가 아프다.
16	입이 자주 마른다.	34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
17	과로하면 밤에 열이 난다.	35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
18	잠을 자려고 할 때 발바닥에 열이 난다.		

(Table. 5) 2차 설문문항 결과

문 항					
1	소변을 자주 본다.	5.07	19	찬 것을 좋아한다.	4.53
2	소변이 진하게 나온다.	4.74	20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	5.96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다.	4.84	21	기침하는 것이 오래 되었다.	5.61
4	소변이 잘 안 나온다.	4.44	22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4.88
5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	5.25	23	뼈에서 열이 난다.	5.38
6	대변이 딱딱한 편이다.	4.44	24	피로를 많이 느낀다.	4.96
7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5.29	25	기상 시 피로하다.	5.33
8	허리가 늘 은은히 아프다.	5.40	26	잠잘 때 땀을 흘린다.	5.33
9	허리가 아파 일어서는 것이 힘들다.	4.66	27	다리와 무릎이 가늘어진다.	4.61
10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	4.77	28	다리에 힘이 없다.	4.59
11	피부가 거친 편이다.	5.03	29	잘 넘어지거나 혹은 발을 잘 뺀다.	3.92
12	밤에 피부가 가렵다.	5.37	30	성인) 성행위 후 피로가 심하다.	5.88
13	오후에 열이 난다.	5.22	31	자위행위를 자주 하는 편이다.	5.14
14	오후에 기침을 한다.	4.88	32	가만히 있어도 정액이 스스로 나온다.	5.44
15	오후에 얼굴이 붉어진다.	4.96	33	발 뒷꿈치가 아프다.	5.11
16	입이 자주 마른다.	4.88	34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	5.37
17	과로하면 밤에 열이 난다.	5.33	35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	6.07
18	잠을 자려고 할 때 발바닥에 열이 난다.	6.00			

(5) 일부 설문문항의 표현 수정

1, 2차 설문지는 7점 척도로 각 문항의 중요도를 조사한 것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설문문항의 유의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자가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 설문의 의미가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설문문항은 설문결과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30, 31, 32번의 문항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표현이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번 “소변이 진하게 나온다.”를 “소변색이 진하다.”로, 3번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다.”를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릴 때가 있다.”로, 4번 “소변이 잘 안 나온다.”를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로, 5번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를 “밤에 수면 중 소변보기 위해 깬 적이 있다.”로, 6번 “대변이 딱딱한 편이다.”를 “대변이 굳은 편이다.”로, 8,9번 문항은 요통의 경우로 제한하여 “거동하면 통증이 덜해진다.”로, 10번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는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빠진다.”로, 11번 “피부가 거친 편이다”는 “피부가 거칠다.”로, 14번 “오후에 기침을 한다.”는 “오후에 기침이 심해진다.”로, 15번 “오후에 얼굴이 붉어진다.”는 “오후에 얼굴이 달아오른다.”로, 16번 “입이 자주 마른다.”는 “입이 마른다.”로, 17번 “과로하면 밤에 열이 난다”를 “밤에 열이 난다.”로, 18번 “잠을 자려고 할 때 발바닥에 열이 난다.”를 “밤에 발바닥에 열이 난다.”로, 20번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를 “밤에 기침이 심해진다.”로, 21번 “기침하는 것이 오래되었다.”를 “기침이 오래 간다.”로, 22번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를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로 23번 “뺨에서 열이 난다.”를 “뺨속이 화끈거린다.”로, 24번 “피로를 많

이 느낀다.”를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로, 26번 “잠잘 때 땀을 흘린다.”를 “수면 중 땀이 난다.”로, 27번 “다리와 무릎이 가늘어진다.”를 “다리나 무릎이 시큰거린다.”로, 28번 “다리에 힘이 없다.”를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다.”로 표현을 수정하여 새로이 설문지를 만들었다. (APPENDIX)

Ⅲ. 고 찰

六味地黃湯은 宋代 醫家인 錢乙이 古方을 化裁하여 創製한 것으로 후세의가들에게 널리 사용된 처방이다. 朱丹溪의 滋陰大補丸은 錢乙의 六味丸과 還少丹을 가감하여 만든 것이고, 李東垣의 益陰腎氣丸, 王海藏의 都氣丸, 瀉腎丸도 六味地黃丸의 類方이며, 뒤를 이어 明代 薛己가 이 처방을 이어 사용하면서 眞陰을 補하는 聖藥이 되었고 趙養葵는 본방을 매우 추앙하여 命門眞水를 補養하는 專劑로 삼았다. 病因論에서는 內因중에 房勞傷을 치료하는 대표처방이라 할 수 있다. 房勞傷이란 嗜慾을 절제하지 못하고 性生活을 과도하게 하여 眞精을 損耗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性生活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인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수면시간의 부족, 다른 질병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眞陰不足 현상도 六味地黃湯의 適應症에 속한다.

六味地黃湯을 文獻에서 살펴보면 泌尿生殖器系를 비롯하여 五官科, 皮膚科, 筋骨格系 등 제반증상에 폭넓게 사용된 처방임을 알 수 있다.

韓醫師가 臨床에서 診療함에 있어 보다 客觀的이고 定量化된 도구가 있다면 韓醫學의 發展을 더욱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六味地黃湯을 病因論의 시각에서 辨證할 수 있는

說問紙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文獻調査와 함께 관련논문과 臨床韓醫師의 의견을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헌 조사는 李15)의 『醫學入門』, 許16)의 『東醫寶鑑』, 張17)의 『景岳全書』, 朴18)의 『病因病機學』, 金19)의 『病因論』 등 5種을 선정하였다. 文獻調査와 臨床韓醫師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실제 臨床에서 辨證시 나타나는 환자들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4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43문항을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여 臨床韓醫師 52인에게 중요도를 리커드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43문항 중 31개의 문항이 평균점 4.00 이상이었으며, 12개의 문항은 4.00미만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셋째,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 평균값 4.00 미만인 12항목은 臨床상 의의가 떨어지므로 삭제하고, 설문조사에서 새로이 제시된 6문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望診에 해당되는 문항을 제외하여 35항목으로 두 번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臨床韓醫師 50인에게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 문항을 제외하고 34문항이 모두 평균 4.00을 넘어 六味地黃湯을 辨證할 수 있는 타당한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전문가 집단이 아닌 실제 환자들이 설문을 작성할 때 의미의 혼란을 피하고자 설문 문항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臨床에서 病因論의 관점에서 처방을 결정할 때 한의사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던 것을 설문을 통해 客觀化 시킬 수 있는 평가도구의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문항이 얼마나 임상에서 診斷의 정확도를 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

하다. 따라서 실제 六味地黃湯의 投藥을 통해서, 본 설문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연구가 추후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IV. 결 론

房勞傷 및 眞陰不足에 사용되는 六味地黃湯을 처방하는 데 있어 病因論의 개념이 잘 반영된 표준화된 지표가 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설문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種의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논문, 임상한의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43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43문항을 바탕으로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여 臨床韓醫師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하여 病因論의 관점에서 六味地黃湯을 辨證할 수 있는 30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大韓韓醫診斷學會소속 한의사 6인이 모여 설문문항의 표현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을 가하였다.

위 결과는 향후 완성도 높은 설문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 좀 더 수준 높은 전문가집단을 선정하여 임상에서 변증하여 처방한 결과와 설문지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윤창열. 한중의학각가학설, 대전, 주민출판사, 2006.
2. 윤태득,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오환섭. 보중익기탕의 병인론적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개발. 대한한의학진단학회지. 2007;11(1): 61-71.

3. 임준성, 박영배, 이상철, 오환섭.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7;11(1): 72-81.
4.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 방법론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87; 8(1): 146-160.
5.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 5(1): 61-80.
6. 김숙경,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4: 7(1): 64-75.
7. 김숙경, 남동현,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Ⅰ).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2; 6(2): 141-156.
8. 양동훈,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어혈변증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 10(1): 141-152.
9. 박재성, 김동훈, 김민용, 이상철, 박영재. 담음변증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 10(1): 64-77.
10. 배노수, 양동훈,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오환섭. 열변증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 10(1): 98-108.
11. 최보엽. 六味地黃湯加味方이 흰쥐의 기억능력과 중추신경계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12. 조정훈. 六味地黃湯 藥針이 생쥐의 卵巢機能 및 妊娠과 分娩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13. 薛耀明. 六味地黃湯對OLEFT鼠 糖尿病發病的豫防作用及其機制的研究. 第一軍醫大學, 2005-04-01.
14. 莊淇源. 中西醫結合治療支氣管哮喘的理論和臨床研究及六味地黃丸對Th1/Th2免疫調節機制的探論. 南京中醫藥大學, 2004-05-01.
15. 張文卿. 六味地黃湯加減治療萎縮性胃炎50例. 新疆中醫藥, 1994; 14(4): 13-14.
16. 이천, 편주의학입문, 서울, 대성출판사, 1982.
17.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98.
18. 장개빈, 경악전서, 서울, 대성출판사, 1993.
19. 박찬국, 병인병기학, 서울, 전통의학연구소, 1992.
20. 김구영, 병인론, 서울, 선, 2001.

APPENDIX

六味地黃湯 辨證 설문지 I

환자 성명 : 성 별 : 남 여 나이 : 세

아래 질문들은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o	문항	1	2	3	4	5	6	7
1	소변을 자주 본다.							
2	소변색이 진하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릴 때가 있다.							
4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5	밤에 수면 중 소변보기 위해 깬 적이 있다.							
6	대변이 굳은 편이다.							
7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8	허리가 아프다(안 아픈 경우 9번으로 이동)							
	8-1 은은히 아프다.							
	8-2 거동하면 통증이 덜해진다.							
9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빠진다.							
10	피부가 거칠다.							
11	밤에 피부가 가렵다.							
12	밤에 열이 난다.							
13	오후에 열이 난다.							
14	오후에 기침이 심해진다.							
15	오후에 얼굴이 달아오른다.							
16	입이 마른다.							
17	밤에 발바닥에 열이 난다.							
18	찬 것을 좋아한다.							
19	밤에 기침이 심해진다.							
20	기침이 오래간다.							

21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22	뺨속이 화끈거린다.							
23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24	기상 시 피로하다.							
25	수면 중 땀이 난다.							
26	다리나 무릎이 시큰거린다.							
27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다.							
28	발 뒷꿈치가 아프다.							
29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							
30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							